

이달의 사진가

매달 국내외 전시·출판 등 주목할 만한 작가의 작품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기획물이다.

# Diana Blok



(Male Wet Nurse), 1996 ©Diana Bl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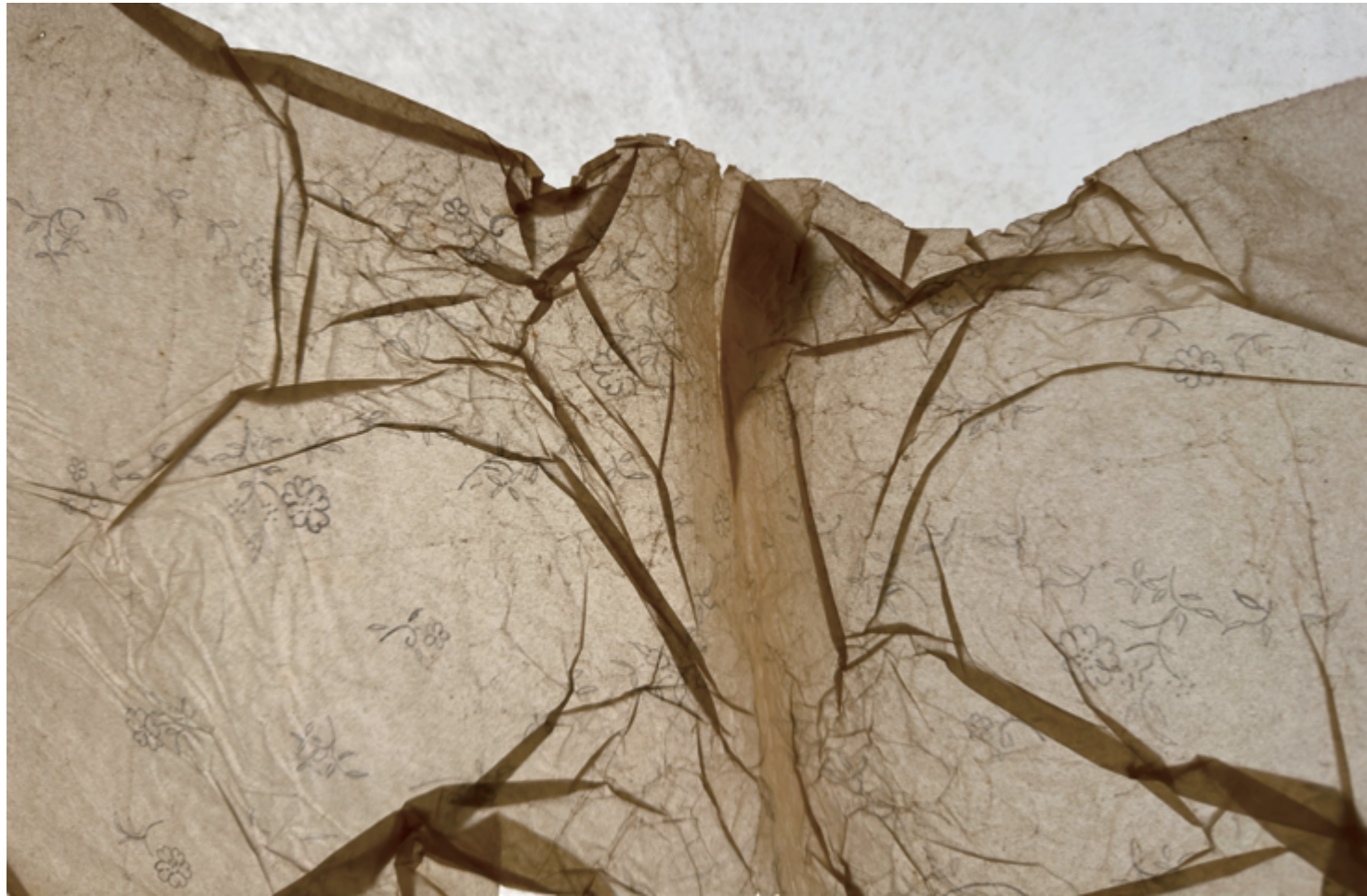
△ (Portrait of my Mother and Father), 1987 ©Diana Blok  
▷ (Portrait of Eddie and Hannah Woods), 2016 ©Diana Blok





< (Self-portrait with my sister), 1985 ©Diana Blok  
△ (World upside down), 1987 ©Diana Blok





##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서: 다이애나 블록, 큐리와와의 대담

글 큐리 뉴욕시립대학교 철학과 교수

번역 문정희 타이완 국립타이난예술대학 부교수 및 한국미술연구소 부소장

다이애나 블록과 큐리의 본 대담에서는, 사진작가 다이애나 블록과 철학자 큐리가 직접 선정한 아홉 점의 사진 작품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한다. 이 대화의 부록으로 포함된 작품들은 회고전 《I challenge you to love me》(24.5.30.~9.29. | 코브라 미술관(Cobra Museum))에서 선보인 주요 작품과 이후 신작에서 가져왔다.

**큐리(이하 큐)** 《The Origin of the World(세계의 기원)》(2024)부터 시작해 보자. 이 작품의 제작 기원은 무엇인가? 스타브 쿠르베(Gustave Courbet)의 《L'Origine du monde(세계의 기원)》에 대한 암시가 있는 것 같고,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Étant donnés(주어진 것들)》도 연상된다.

**다이애나 블록(이하 다이애나)** 쿠르베의 《The Origin

of the World》는 나의 작업 과정에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사실, 나를 이끈 어떤 힘이 어머니의 아카이브를 다시 열도록 만들었다. 1930년대 어머니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그려진 패턴, 표본, 의복들은 그녀의 고향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시작으로 몬테비데오, 보고타, 과테말라, 멕시코, 그리고 결국 그녀가 세상을 떠난 헤이그까지 우리 가족과 함께 여행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소중한 남겨진 것들을 가지고 과거를 변형하고, 다시 빚어내며, 마치 그녀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

**다이애나** 나는 접힌 패턴들을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그 형태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바라본다. 반투명



< 《The Origin of the World》, 2024 ©Diana Blok  
> 《Living Leaves》, 2021 © Diana Blok

한 패턴을 빛에 비추어 들고, 눈으로 스캔하고, 렌즈를 통해서 선과 자국, 접힘, 생각, 꽃 등의 기하학적 형태의 구성을 본다. 나비, 날아가는 새, 토르소, 여성, 여성의 질, 자궁, 풍경, 그리고 쿠르베의 기원에 대한 추상을 본다. 이 작업은 기억처럼, 선택과 조합, 나타남과 사라짐의 과정이다. 이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서 서로 작용하게 한다.

**큐** 사진은 정말 시간적인 예술이다. “빛으로 쓴” 이미지 속에서 음악적인 흐름이 머물게 된 것 같다. 장소는 과정이 되고, 또 그 반대가 되며, 특히 당신의 작업에서는 그러한 시간의 아카이브적인 접힘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 현재 당신이 계획한 “어머니와 아카이브의 재접속”이라는 프로젝트는 생물학적인 어머니가 구체적이며 복잡하고 상관된 존재로서 재등장하고, 당신은 다양한 쿼어 같은 유동적 형태, 그 성적인 물질성과 에너지성을 유희하듯 ‘드러냄’으로써 시간의 접힘(주름)을 재방문하고 다시 추적해 재연출을 한다. 최근 작품인 《Living Leaves》(2021) 시리즈의 구성적인 기

원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다이애나** 《Living Leaves》 시리즈는 고요함, 빛, 형태, 그리고 의미가 하나가 되는 매우 새롭고 신비로운 과정이었다. 그 안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작업 중 가장 단순한 프로젝트가 되었다. 최소한의 것에서 최대한의 것으로 끌어내는 것이었다. 팬데믹 동안 나는 브라질 중부의 고지대 사막에서 5개월을 보냈고, 내 눈에 머물렀던 흥미로운 형태의 낙엽들을 수집했다. 낙엽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한 것은 하나의 메타포가 되었고, 시간의 흐름을 담은 자화상이 되었다.

**큐** 당신이 자신을 독학으로 배운 “직관적인” 사진작가라고 하며, 단지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간다.”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당신이 주목했던 ‘보이지 않는’ 역동성에 관해 묻고 싶다.

**다이애나**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정원에 ‘무대’를 설치하고, 반투명 유리를 통과한 자연광만 사용했다. 그다음은 대상과 빛을 관찰할 뿐, 추상에 이르

는 것은 성장의 과정이지, 결코 출발점이 아니며 그저 시간문제다. 낙엽을 촬영한 54점의 초상 사진을 선별한 작품이 현재 카이예(cahier, 소책자)로 출간됐다.

**큐** 당신은 시간을 포함해 사물들 자체가 표현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혹은 기다리고 있는 듯이 보인다. 〈Portrait of my Mother and Father〉(1987)에서 인상적인 “이중의 우연성(더블 해프닝)”은 구조적인 상수처럼 보인다. 어떻게 부모님을 이처럼 나란히 앉히게 되었나?

**다이애나** 이 사진은 모든 재난과 차이를 넘어서 존재하는 사랑의 가능성을 전하고 있다. 두 분은 서로 정반대였다. 북과 남, 말이 없는 사람과 수다스러운 사람,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이주민이었고, 배경도 전혀 달랐다. 이 초상에서 영감은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다는 성경 속 삼손의 이야기에서 나왔다. 처음 콘셉트는 어머니만 포즈를 취할 예정이었다. 어머니는 아름다운 긴 머리카락을 가졌고,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그녀에게 그 힘을 부여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로 두 분 중, 진짜 페미니스트였던 분은 아버지였다. 사진을 찍을 때 어머니에게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머리카락

을 풀어 달라고 부탁드렸다. 아버지는 “나도 함께 찍는 거니?”라고 물으셨다.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정장을 골라 입으셨다.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아버지의 어깨에 두른 것은 직감적인 즉흥 행위였다. 이 작품에는 명확한 비전과 유연성 그리고 피사체와의 협동이 적절하게 융합되었다.

**큐** 적절한 표현이다.

**큐** 또 그래서 〈Mother's Wedding Negligee〉(2006)는 웨딩드레스를 입는 대신, 어머니의 웨딩 네글리지를 꺼내서 사진을 찍었다. 그 안에는 당신과 아버지 모두에게 내재한 적극적인 페미니스트의 모습이 많이 담겨 있다.

**다이애나** (웃음) 정말 멋진 생각이다! 어머니가 생전에 디자인하고 수놓으신 옷들을 사진에 담음으로써, 기억과 상상이 뒤섞인 감정이 생겨났다. 2006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그런 상실의 과정을 거쳐,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어머니의 훌륭한 자질도 인정할 수 있었다. 남성 우월주의가 매우 강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어머니가 4명의 딸을 키운 것은 결코 간

◀ 〈Incorporating Juliet〉, 2022 ©Diana Blok  
▶ 〈Mother's Wedding Negligee〉, 2006 ©Diana Blok



단한 일은 아니었다. 4명의 딸을 키우는 일은 어머니에게 전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큐** 가족, 문화, 상실, 화해... 다시 한번, 그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이 담겨 있다.

**다이애나** 가톨릭 어머니와 쿼어 딸로서, 우리 관계는 쉽지 않았다. 나는 아그파 스칼라(Agfa Scala) 흑백 슬라이드 필름을 사용해 어머니의 의복을 피사체로 한 많은 정물 사진을 백과 흑으로 촬영했다. 2012년에는 이것이 《Time Tells》라는 전시와 책, 그리고 우리 가족의 역사로 묘사된 37분의 영화로 발전했다. 이것은 치유의 과정이었고 현재는 새로운 형태인 『The Origin of the World』로 이어졌다.

**큐** 드러내어 치유한다는 것은, 당신의 작품에서 반복해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다. 자아 정체성에 대한 확장된 탐구가 ‘또 다른 자아(alter ego)’와의 협업을 통해, 대본이 있거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젠더적인 바람, 꿈, 희망을 연기하며 전개된다.

**다이애나** 〈Incorporating Juliet〉(2022)의 루카는 내가 선보인 〈Adventures in Cross-Casting〉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았다. 한 젊은 연극 동아리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전시를 관람한 뒤, “이성(異性)의 연극 속 꿈의 역할을 선택한다”라는 나의 개념을 따라 퍼포먼스를 창작했다. 루카는 줄리엣을 선택했다. 그는 퍼포먼스 때 가발을 썼지만, 공연이 끝난 후 나는 그에게 가발을 벗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모든 얼굴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떤 소품도 없이, 그 안에 내재한 여성성이 드러나는 모습이 훨씬 더 강렬했다. 이 초상에는 초심자의 정신이 담겨 있는데, 그 순수함이 나를 사로잡았고, 내 마음을 깊이 울렸다.

**큐** 이러한 욕망의 언어들은 어떻게 생성되는가? 그것들은, 그리고 결국 우리이자 그들이기도 한 이 무수한 혼을 머물게 한 시간 여행자들은 어떻게 “사진의 존재”가 되고 또 그렇게 계속되는가? 당신 자신의 쿼어 페미니스트적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젠더, 섹슈얼리티, 개성, 가정성, 친밀함, 위약함, 진정성, 자율성, 다양성 등을 주제로 한 당신의 작업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이애나** 내 작업은 독립에 대한 욕구, 권력과 권위에 관한 질문에서 나온 그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정적인 존재가 아니며, 영원한 것도 없다. 젠더는 변용할 수 있고, 성적 지향도 유동적이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며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놀라운 것은, 내가 늙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영혼에는 시간이 없고, 육체에는 있는... 그것은 무성(無性)의 진실이다. 사진은 본질적으로 시간을 멈추게 하는 매체다. 나는 1970년대 중반부터 젠더 이슈와 성적 정체성에 대해 질문해 왔다. 지금은 이 주제가 매우 커졌고, 유행처럼 다뤄졌으며 정치적으로도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큐** 어머니, 아버지, 딸, 연인, 퍼포머, 몽상가, 협업자, 아웃사ider, 여행자 등 친구와 가족을 촬영해 온 암스테르담 거점의 사진작가인 당신은 에디 우즈(Eddie Woods)와도 만났다. 이 초상 사진 〈Portrait of Eddie and Hannah Woods〉(2016)의 배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

**다이애나** 에디와 해나 우즈, 할아버지와 손녀. 두 사람 모두 쿼어이며, 시인이다. 에디는 1980년에 내가 처음 만든 엽서 몇 장을 출판해 주었다. 가장 강렬했던 협업은 1980년에 작업한 피에타의 젠더 벤더(gender-bender) 버전이었을 것이다. 에디는 마리아를, 나는 예수를 연기했다. 내가 그들에게 포즈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모두 논 바이너리(non-binary)이며 양성애자(bi-sexual)이고, 또 열린 마음과 실험정신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

**큐** 재미있게도, 당신의 예술적 풍경은 곧 친구들 풍경이기도 하다.

**다이애나** 나는 매우 자립적인 성향이라, 몇몇 예외를 제외하곤 의뢰 작업을 맡는 것이 어려웠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이나 오래 알았던 사람들을 촬영하는 것이다.

**큐** “가슴에 대한 선망(breast envy)” 같은 일도 있다. 한국식 영어로 말하면 “스킨십(skinship)”의 일부로서 친밀감이다. 왜 이 작품이 그렇게 특별한가?

**다이애나** 이 이미지를 선택한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매혹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신빙성이 있다. 그때는 1997년으로, 포토샵이 막 나와 알려지기 시작하던 시기였는데, 〈Male Wet-nurse〉(1996)는 콜라주가 아니었다. 이 ‘현실/비현실’의 경계는 나를 초현실 세계로 이끌었다. 그것은 종래의 현실을 넘어서 욕망, 꿈, 그리고 다른 비논리적인 창조물로 이르게 했다.

**큐** 정말 초현실적이면서도, 초현실적인 현실 같다.



**다이애나** 이 촬영 세션에서 내 스튜디오의 상황은 매우 인상적이라 할 수 있다. 쇼어트 디든(Sjoerd Didden)은 그의 아들을 위해 아주 작은 가발을 만들었다. 그들의 생모는 실제로 아기에게 수유한 뒤, 그를 아버지에게 건네주었다. 이 시리즈 전체가 정말 매혹적인 프로젝트였고, 등장한 모든 인물과의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었다.

**큐** 나체도 당신의 예술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며 초점의 하나다. 당신이 자매와 함께한 자화상의 제작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왔나?

**다이애나** 〈Self-portrait with My Sister〉(1985)는 〈Blood Ties And Other Bonds〉(1985~1990)라는 프로젝트의 일부다. 나는 가족을 구성함에 대한 금기에 도전하고, 대안적인 사고를 촉발하게 시키려 했다. 이는 정체성, 감정적 친밀감, 나체, 그리고 벗겨진 진실에 관한 연구였다. 임신한 여동생과 함께한 이 친밀한 초상화 같은 가족 관계를 드러내는 논쟁적인 방식이었다.

**큐** “노골적인(explicit)” 이미지와 사회적 금기에 대해, 그리고 미술사에서 논의되어 온 ‘nudity’와 ‘벗겨 벗음(nakedness)’의 양식적 차이에 비해, 이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들려줄 수 있을까?

**다이애나** 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자랐다. 우리 가족은 서로 앞에서 벗겨벗는 일이 전혀 없었고, 그것은 문화적으로 금기였다. 네덜란드에 와서 처음 해변에서 그

렇게 많은 나체를 보았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 후, 이 금기를 비성적(非性的)인 시점에서 극복하는 것이 나로서는 도전이었다. 인간의 몸이 지닌 모든 불안 전함을 포함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모든 문화적 문맥을 벗겨내어 친밀한 관계 속 개인 묘사를 목표로 했다. 엘레나 포니아토프스카(Elena Poniatowska)의 아포리즘을 빌리자면, “그들은 벗은 채로 포즈를 취하지만, 눈의 표정에는 웃이 입혀져 있다.”라고 했다.

**큐** 당신은 자신을 “아나키스트 사진작가”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예술적 자기 인식은 어떻게 해서 스타일 측면의 선택이 되나? 창의적 모험에 대한 당신의 생각도 함께 들려줄 수 있을까? 이번에 우리의 대화를 마무리하며 다룰 〈World upside down〉(1987)은, 첫 이미지인 〈The Origin of the World〉와도 공명하며, 거꾸로한 포즈에서 다시 벗은 인물이 묘사되었다. 보기 좋게 ‘위아래의 역전’에서 ‘내외가 전복된’ 상태, 이러한 표현이야말로 아방가르드 정신의 일부이며 실로 예술적인 행위다.

**다이애나** 어린 시절 나는 거꾸로 서서 세상을 뒤집어 보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 몇 년 후, 나는 요가와 타로, 켈트 룬 문자 같은 신비주의적 학문을 접하게 되었다. 이 이미지와 그 이후의 시리즈들은 이 모든 것들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희생’이라는 요소는 나에게 있어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며, 그것은 예술사와 신비주의 전통 속에 늘 존재해 왔다.

◁ 〈Self Portrait〉 ©Diana Blok  
▷ 코브라 미술관에서 열린 회고전 〈I challenge you to love me〉 전시 전경

**큐** 당신은 “왼쪽 눈” 사진작가라고 했나?

**다이애나** 왼쪽 눈으로 보는 것이 나의 구도를 정의하고, 아마도 내용까지도 그렇다. 나의 ‘스타일’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을 ‘영혼’이나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더 선호한다. 어떤 주제를 발견하고 거기에 접근할 때, 나의 ‘스타일’은 변한다.

그리고 〈Living Leaves〉 같은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때면, 나는 완전히 다른 사진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의 작품을 아는 사람만이 이것이 같은 사람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나는 프로젝트를 영원히 이어 갈 수 없다. 이것이 나의 ‘아나키스트’적인 본성의 일부다.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매우 어렵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에 무엇이 올지 알기 위해 깊고도 뒤집힌 곳까지 파고들어 갈 필요가 있다.



**다이애나 블록(Diana Blok, 1952~)**은 정체성, 젠더, 성적 다양성, 문화적 유산을 탐구하는 작업으로 잘 알려진 네덜란드-우루과이계 시각 예술가다. 1974년 암스테르담에서 사진 작업을 시작했으며, 이후 영상 작업도 병행하게 되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보이지 않는 힘들(Invisible Forces)〉 〈혈연과 그 너머(Blood Ties and Other Bonds)〉 〈젠더 모놀로 그 설치(Gender Monologues installation)〉 등이 있다. 2024년에는 코브라 미술관에서 그녀의 50년 회고전 〈I challenge you to love me〉가 개최되었다.

**큐리(Kyoo Lee, 한국명 이규)**는 뉴욕시립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 철학과 정교수이며, 철학자이자 큐레이터, 작가, 비평가, 편집자다. 케임브리지대학교와 한국고등과학원(KIAS)에서 국제펠로우였다. 저서로 『Reading Descartes Otherwise』, 『Writing Entanglish』 등이 있으며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출판하는 초대륙적 페미니즘 이론저널인 『philoSOPHIA』의 편집장이다. 2022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편집장, 2024년 한국관 30주년 전시에서 국제 자문위원, 협업작가, 홍보위원으로 활약했다.